

2020년 여름방학 중 총장 서신

장신공동체 모두의 평안을 기도드리며, 방학 중 학교의 여러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학기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야기된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는 빠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모든 생각과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안전한 캠퍼스와 원활한 교육환경의 확보라는 우선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여유 없이 달려온 지난 학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장신의 지체들이 방학 중에도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 여름 사역을 준비하느라 심신의 피로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염려가 먼저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헌신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흘리는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방학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학교는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서의 치열한 노력과 수고가 장신대 캠퍼스에서의 삶과 학업을 통하여 쉽과 충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방학 중에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2차 유행의 우려 속에서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담보해 드리기 위해 건물별로 생활방역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① 방문자 전원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후 건물 입장, ② 방문자 명단 확보 ③ 정기적 방역 실시) 또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접촉 빈도를 낮추어 전염병 발생 확률을 낮추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조언에 따라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2학기에도 생활관을 2인 1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금번 방학은 학교가 지난 학기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교수자와 학습자 간 발생된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디지털 교육환경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행정적, 교육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① 교내 무선 LAN을 재구축하여 양질의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 ② 선생님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온라인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이패드(LTE용)를 지급할 것입니다.
- ③ 강의 콘텐츠의 질과 제작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스튜디오(소양관 306호)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④ 선생님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고자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이플렉스 수업을 대비하여 수업 도우미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 ⑤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업의 진행을 위하여 소양주기철기념관 강의실(총24개)의 빔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이동하고, 스크린의 조도를 조정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등 수업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환기적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며 모두가 예민하고 날카롭고 때로는 우울한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신공동체가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품격을 높여줄 때 한국교회와 사회에 생명과 희망을 전하고 함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바로 장신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은 새로운 언택트 환경에서 원활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방학 중에도 디지털 리터러시와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강의를 받으며 2학기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교수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과 직원들은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위 속에서 건승하시고, 2학기에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전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7월의 마지막날
총장 임성빈 드림